

'5월 무승' 절박한 광주, 포항 원정서 다 쏟아붓는다

K리그1 30일 포항전...역대 전적 6무 13패 지독한 열세 빠른 역습과 체력 우위 내세워 첫승 일구고 반전 계기로

뒷심 싸움에서 울고 있는 광주FC가 절박한 심정으로 포항 원정길에 나선다.

광주는 30일 오후 7시 포항스틸야드에서 포항 스틸러스를 상대로 K리그1 2021 19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5월 5경기에서 1무 4패에 그치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4패 중 3패가 선제골을 넣고도 경기 막판 결승골을 내주면서 기록한 역전패였다.

앞선 수원삼성과의 대결에서도 전반 6분 한희훈의 득점으로 리드를 잡았지만, 3개의 페널티킥을 주고 받은 공방전 끝에 3-4 역전패를 기록했다.

아쉬운 패배에도 광주 신예 선수들의 스피드는 빛났다.

지난 16라운드 인천 원정길에서 부상 복귀 후 두 경기 만에 골맛을 봤던 엄원상이 빠른 발을 앞세워 상대의 빈 틈을 파고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희균의 롱패스를 받은 엄지성도 페널티킥을 연어내면서 광주의 미래들이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비고 있다.

페널티킥 골이기는 하지만 헤이스도 고대하던 K리그 데뷔골을 넣으면서 득점 부담감을 덜었다. 김종우도 페널티킥 키키로 나서 득점을 기록했다.

자신감을 채운 헤이스와 김종우의 발끝이 포항을 겨냥한다.

5월 무승, 최하위라는 위기 속 광주는 어려운 상대를 만난다.

광주는 포항과 19번 만나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역대 전적에서 6무 13패로 지독한 열세를 기록하고 있다.

휴식기를 앞두고 치르는 경기인 만큼 광주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포항 대전을 준비하고 있다.

포항과의 만남은 항상 뜨거웠다.

지난 시즌 23라운드 원정길에서도 광주는 먼저 2실점을 하고도 끈질긴 투혼으로 3골을 기록했지만, 뒷심 싸움에서 밀리며 3-5 패배를 기록했다.

올 시즌에도 10라운드 맞대결 당시 슈팅 15개(유효슈팅 9개)를 날리며 애썼지만 끝내 포항의 벽을 뚫지 못하고, 0-1패를 기록했다.

광주는 위기 상황에서 송민규, 강상우, 신진호가 포진한 포항을 상대하게 된다.

어려운 상대지만 포항은 주중 충남아산FC와 FA컵을 치르면서 피로가 쌓였다.

광주가 빠른 역습과 강력한 세트피스로 체력 부담을 안은 포항을 흔들며 기다렸던 승리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7일 폴란드 그단스크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비야레알의 경기에서 비야레알 골키퍼 톨리가 맨유 골키퍼 데헤아의 승부차기 킥을 막아내고 있다. /연합뉴스

'11-10' 피말린 PK 혈투...비야레알이 웃었다

11번째 킥 골키퍼 맞대결서 희비 맨유 꺾고 창단 첫 유로파리그 우승

'노란 잠수함' 비야레알(스페인)이 승부차기 끝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잉글랜드)를 꺾고 창단 후 처음으로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정상에 올랐다.

비야레알은 27일 오전(한국시간) 폴란드 그단스크의 그단스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맨유와의 2020-2021 UEFA 유로파리그(UEL) 결승에서 연장까지 120분 동안 1-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도 11명씩의 킥어가 나서는 명승부를 펼치고

11-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유로파리그의 전신인 UEFA컵을 포함해 사상 처음 대회 결승에 오른 비야레알은 우승 트로피까지 들어 올리며 98년의 구단 역사를 새로 썼다.

1923년 창단한 비야레알은 스페인 프로축구 1부리그(프리메리리가)에서 2007-2008시즌 준우승이 최고 성적이고, 2008년을 끝으로 없어진 대회인 UEFA 인터토토컵에서 두 차례(2003, 2004년) 우승했을 뿐이다.

아울러 조별리그에서 5승 1무에 이어 32강전부터 4강전까지 7승 1무를 기록했던 비야레알은 무패 우승도 이뤘다.

UEFA컵을 포함해 유로파리그에서 무패 우승은 토트넘(잉글랜드, 1971-1972시즌), 뮌헨글라트바흐(독일, 1978-1979시즌), 예테보리(스웨덴, 1981-1982 및 1986-1987시즌), 아약스(네덜란드, 1991-1992시즌), 첼시(잉글랜드, 2018-2019시즌)에 이어 비야레알이 7번째다.

세비야(스페인)에서 2013-2014시즌부터 3년 연속 우승을 지휘해 이탈리아의 조반니 트라파토니 감독(1976-1977 및 1992-1993시즌 유벤투스, 1990-1991시즌 인터밀란)과 유로파리그 통산 최다 우승 사령탑 공동 1위였던 우나이 에메리(스페인) 비야레알 감독은 최초의 '4회 우승'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반면 맨유는 2016-2017시즌 이후 4년 만이자 통산 두 번째 유로파리그 우승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팀의 승부는 연장전으로 이어졌으나 역시 균형을 깨뜨리지 못하고, 운명의 승부차기를 맞이했다.

비야레알의 선축으로 시작된 승부차기는 양 팀 필드 플레이어 10명 모두 깔끔하게 성공시킨 뒤 11번째 킥으로 나선 골키퍼들이 희비를 갈라놓았다.

비야레알 골키퍼 헤르니모 톨리가 오른발 킥으로 골문 오른쪽 상단 구석에 꽂은 뒤 맨유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의 슈팅을 막아내면서 비야레알은 사상 첫 유로파리그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연합뉴스

벤투호 '행운의 조 1위'

월드컵 예선 포기한 북한 경기 모두 무효 처리되며 승점 재조정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에서 중도 불참한 북한의 경기가 모두 무효 처리돼 벤투호가 조 1위로 올라섰다.

대한축구협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북한의 2차 예선 불참에 따른 H조 순위 결정 방식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FIFA는 북한이 그동안 치른 5경기를 모두 무효

로 처리했다. 처음부터 북한이 출전하지 않았던 것처럼 H조 팀들의 승점을 계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순위는 5개 팀 중 2위(승점 8·2승 2무)에서 4개 팀 중 1위(승점 7·2승 1무)로 한 계단 올라갔다.

벤투호는 평양 원정에서 0-0 무승부에 그친 바 있다.

원래 1위(승점 9·3승 2패)였던 투르크메니스탄은 3위(승점 6·2승 2패)로 2계단 하락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북한을 상대로 1승을 올린 유일한 팀이었다.

3위(승점 8·2승 2무 1패)였던 레바논은 2위(승점 7·2승 1무)로 올라섰다.

북한은 코로나19을 이유로 2차 예선 포기를 선언했고, 이달 중순 북한의 불참이 최종 확정됐다.

이후 FIFA와 AFC는 H조 승점 산정 방식을 두고 논의해왔다.

이미 처리된 북한의 경기 기록을 그대로 두고 처리하지 않는 북한의 경기만 모두 북한의 0-3 기권패로 처리할지, 아니면 북한의 모든 경기를 무효

로 돌릴지 등을 두고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은 북한의 경기를 북한의 0-3 기권패로 처리했다면 순위 경쟁에서 벤투호가 불리해질 수 있었다.

각 조 2위 팀 간 순위를 가르는 방식도 다소 바뀌었다. 2위 팀과 5위 팀 간의 경기 기록을 제외한 2위 팀들의 승점과 골득실 등을 계산해 순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래 2차 예선은 40개 팀이 8개 조로 나뉘어 치러지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각 조 1위 8팀이 최종 예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 팀 중 승점이 좋은 4개 팀이 추가로 최종예선에 진출하는 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불참하면서 2위 팀 간 순위를 가를 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연합뉴스

프랑스오픈 테니스 30일 개막 나달·윌리엄스 최다우승 도전 권순우 메이저 두번째 본선 승리 노려



라파엘 나달 세리나 윌리엄스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프랑스오픈 테니스 대회가 30일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막을 올린다.

올해 대회 총상금은 3436만215 유로(약 469억8000만원)로 정해졌고, 남녀 단식 우승 상금은 한국 돈으로 19억원 정도인 140만 유로다.

단식 본선 1회전에서 패해도 8000만원이 넘는 6만 유로를 준다.

올해 남녀 단식의 최대 관심사는 라파엘 나달(3위·스페인)과 세리나 윌리엄스(8위·미국)가 각각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여부다.

먼저 나달은 현재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에서 통산 20차례 우승,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와 함께 최다 우승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다. 올해 프랑스오픈에서 나달이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21회 우승을 달성한다.

클레이코트에 강한 나달은 프랑스오픈에서 최근 4년 연속 우승,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된다.

지난해 결승에서 만난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2018, 2019년에 연속 준우승을 차지한 도미니크 팀(4위·오스트리아),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스테파노스 차치파스(5위·그리스) 등이 나달의 우승을 견제할 선수들로 꼽힌다.

여자 단식에서는 윌리엄스가 통산 24번째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한다. 윌리엄스는 현재 메이저 대회 23회 우승으로 마거릿 코트(은퇴·호주)의 기록과 동률을 이루고 있다.

윌리엄스가 우승하면 남녀를 통틀어 최초로 메이저 대회 단식 24번째 우승의 금자탑을 쌓는다.

여자 단식에서는 애슐리 바티(1위·호주), 지난해 우승자 이가 시비오네키(9위·폴란드) 등이 우승 후보로 꼽힌다.

한국 선수로는 남자 단식에 권순우(90위·당진시청)가 본선에 출전한다.

권순우는 지난해 프랑스오픈 1회전에서 탈락했고, 지난해 US오픈 2회전 진출 이후 메이저 대회 단식 본선에서 두 번째 승리에 도전한다. 아직 대진표가 나오지 않아 올해 1회전 상대는 미정이다.

여자 단식 한나레(228위·인천시청)는 예선에 출전했지만 1회전에서 탈락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2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3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비와 당신의 이야기
4관	파이프라인
5관	크루엘라, 파이프라인
6관	크루엘라
9관	분노의 질주: 더 얼티메이트 링: 더 라스트 챔피
7관 씨네커플	크루엘라, 보이저스, 애플
8관 씨네커플	도라에몽: 스텐바이미 2,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바색의 단환 링: 더 라스트 챔피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심규선, 달의 뒷면처럼 외로웠던 우리

일시: 2021.05.28.(금) 11:0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4

GAC기획공연 포커스

토니 운 피아노 리사이틀

일시: 2021. 06. 26.(토) 19:30
장소: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062-613-8233